



## | 겨레의 창 |

## 『임격정』에서 『국수』까지

- 염무웅 / 겨레말큰사전 이사장

며칠 전 작가 김성동이 보내준 소설책 한 질을 받았다. 400쪽 가까운 두께로 모두 다섯 권이니, 대하소설이라 할 만하다. 이름하여 『국수』인데, 표지에 國手라고 한자로 크게 쓰여 있다. 이 작가의 문학적 미력을 웬만큼 알고 있는 나로서는 “1991년 연재 이후 27년 만의 완간! 구도(求道)의 작가 김성동 혼신의 역작!”이라고 출판사에서 내건 선전 문구가 한갓 과장이 아님을 알겠다.

그런데 작가는 다섯 권 소설만 쓴 것이 아니라 따로 國手事典이라는 제목의 낱말사전을 지어서 별권(別卷)으로 붙였다. 예사롭지 않은 일이다. 물론 과거에도 한 작가의 작품세계를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한 ‘소설어 사전’은 더러 편찬되었다. 들인 수고에 비해 알아주는 이가 적은 이 힘든 작업을 가장 열심히 해온 분은 민충환 교수라고 알고 있는데, 그는 이미 1995년에 『임격정 우리말 용례사전』을 출간한 바 있었다.

벽초 홍명희가 1928년 연재를 시작하여 미완으로 끝낸 대하소설 『임격정』은 잘 알려져 있듯이 저자인 벽초의 율복으로 인해 오랫동안 금서로 묶여 있다가 1980년대에 와서야 열 권으로 전체가 출판되었다. 『임격정』은 작품이 연재되던 일제강점기에도 이미 풍부한 우리말 어휘로 인해 경탄의 대상이 되었다. 소설가 미효석은 “큰 규모 속에 담은 한 시대의 생활의 세밀한 기록이요 민속적 재료의 집대성이요 조선어휘의 일대 어해(語海)”라고 격찬했고, 평론가 박영희는 “구상의 광대함과 어휘의 풍부함과 문장의 유려함”에서 세계문단에 자랑할 만한 작품이라고 평가했던 것이다.

돌이켜보면 한국사에서 19세기 말 20세기 초의 근대 전환기는 말과 글의 일치에 향배하던 근대적 ‘우리말 문장’의 형성기이기도 했다. 그리고 한자·한문의 오랜 지배에서 벗어나는 과정에서 소설가들이 이룩한 공적은 특별한 것이었다. 젊은 시절 벽초와 함께 도쿄에서 유학했던 춘원 이광수의 초창기 소설들도 근대적인 어문일치 문장의 발전에 불멸의 기여를 했고, 뒤를 이은 염상섭·김동민·현진건 등의 공적도 잊을 수 없는 것이었다. 그런 점에서 민충환 교수의 정리작업은 적지 않은 의의를 지닌다. 『임격정 우리말 용례사전』 이후에도 민 교수는 박완서·최칠남·송기숙·이문구 등의 작품들에 대한 ‘소설어 사전’을 내놓아, 이들 작가의 문학세계에 대한 비평적 분석이나 문학적 평가가 제대로 하려면 그들이 구사하는 소설 언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생략될 수 없는 기초과정임을 강조했다.

\*\*\*\*\*

소설 『국수』에 대한 본격적인 문학적 평가는 간단한 일이 아니니, 그것은 뒷날 또는 뒷사람에게 맡긴다. 다만, 나는 여기서 『임격정』의 소설 언어에 대한 김성동의 견해를 검토해보고 그것이 ‘겨레말’의 역사적 위상을 생각하는 데 어떤 유익한 암시를 줄 수 있을지 하는 점만 잠깐 살피려고 한다.

먼저 삼기할 것은 김성동이 자신의 선행업적으로 거의 유일하게 『임격정』을 거명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머리말에 해당하는 ‘할아버지, 그리고 식구들 생각’이라는 글에서 그는 ‘국민학교’ 5학년이었던 1958년 할아버지 손에 잡혀 한밭(大田)에 갔다가 대본서점에서 『임격정』을 빌려 읽었다고 한다. 그런데 열두 살짜리 어린아이였음에도 그 소설에는 모르는 말이 거의 없었다. 식구들이 늘 쓰는 말이었기 때문이다. 실은 그다음이 중요한 지적인데, ‘뒤편(=도리어) 아쉬운 점이 있었으니...’라고 하면서 그는 『임격정』 언어의 아쉬운 점을 다음과 같이 토로하는 것이다.

“몰말어 말이 똑같다는 것, 계급에 따라 달라지는 말이 죄 똑같고, 사는 고장에 따라 달라지는 말이 죄 똑같다. 이른바 계급, 곧 사는 꼴과 사는 땅에 따라 달라지는 ‘말’을 조선시대 것으로 되살려 내지 않은 글지 (=작가)한테 아쉬움이 크다.”

과연 김성동의 지적대로 『임격정』에서는 조광조 같은 선비나 임격정 같은 율패나, 또 함경도 출신 갖바치나 서울 출신 양반이나 거의 구별 없이 점잖은 말을 사용한다. 이것을 문제 삼은 평론이 없었다고 김성동은 주장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임격정』을 읽는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대뜸 인지되는 점을 그동안 아무도 지적하지 않았을 리 없다.


내 생각에 문제는 벽초 자신이 이 점을 어떻게 의식하고 소설창작에 임했는가 하는 것이다. 그의 출신성분이나 교양으로 보아 비록 소설에서라도 상스러운 말을 쓰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가 처한 특수한 역사적·정치적 상황으로 미루어 그는 어떤 ‘특정한 언어’를 의식적으로 사용했으리라는 것이 나의 호의적인 추론이다. 『임격정』의 한 대목을 가지고 이 점을 생각해보자.

갖바치가 주석하는 칠장사에 걱정미와 김덕순(기묘사화 때 조광조와 함께 처형된 김식의 둘째 아들)이 잠시 머무는데, 이때 걱정미의 며칠 적 동무 이봉학이가 나타난다. 김덕순은 오래전 헤어졌던 봉학이를 20여 년 만에 보는지라 “자네를 만나기는 의외일세” 하고 반기고, 그러자 걱정미는 왜 봉학이에게는 ‘하계’를 하고 자기에게는 ‘해라’를 하느냐며 덕순에게 따지고 든다. 그리하여 덕순이와 걱정미 사이에 다음과 같은 대화가 오간다.

“존대, 하오, 하계, 해라, 말이 모두 몇 가지람, 말이 성가시게 생겨먹었어.”  
하고 말의 구별 많은 것을 타박하니 덕순이가 웃으면서  
“말의 구별이 성가시다고 하자, 그러하니 너는 어쨌으면 좋겠단 말이나?”  
하고 물었다.  
“말을 한 가지만 쓰게 되면 좋을 것 아니오.”  
“어른 아이 구별 없이 말을 한 가지만 쓰는 데가 천하에 어디 있던 말이나?”  
“두만강 건너 오랑캐들의 말은 우리말같이 성가시지 않은갑디다. 천왕동이의 말을 들으면 아비가 자식보고도 해라, 자식이 아버보고도 해라랍디다.”  
“그러니까 오랑캐라지.”  
“오랑캐가 어땡소? 그것들도 조선양반 마찬가지 사람이라오.”  
하고 걱정미가 덕순이와 말을 다들 때에 대사가  
“우리말에 흥화가 너무 많은 것은 사실이겠지, 그렇지만 어른 아이는 고사하고 양반이니 상사람이니 차별이 있는 바에야 말이 자연 그렇게 된 것 아닌가.”  
하고 말참례하고 나셨다. (『임격정』 제3권)

요컨대 우리말에 흥화가 많은 것은 언어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 속에 실재하는 복잡한 인간관계와 계급구조의 반영이라는 것, 따라서 어떻게 하면 현실 자체를 평등한 인간사회로 개혁해 나갈 것인가가 문제라는 것이 여기 표현된 벽초의 생각이다.

그러나 이러한 평등 지향적 사상만으로 벽초의 언어사용이 다 해명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임격정』이 쓰여지던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 그리고 그 시대의 우리말과 우리글이 현실적으로 어떤 발전상태에 있었는지 삼기해볼 필요가 있다. 조선어학회가 <한글맞춤법통일안>을 만든 것은 1933년인데, 맞춤법의 적용대상은 당연히 그 나라 안에서 사용되는 말 전체를 가정할 수밖에 없다. 지역에 따라 다르고 계급에 따라 다른 말들 가운데 어느 하나를 표준으로 삼지 않고서는 맞춤법의 보편적 적용은 불가능하다. 그런데 맞춤법통일안이 만들어지고 표준어가 정해지더라도 그것들이 실생활에서 정착되는 것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더구나 1930년대는 일제의 식민지 억압체제가 점점 강화되고 있어서 민족적 정체성의 유지 자체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었다. 바로 이런 조건 속에서 벽초는 우리말의 규범적 단일성을 수호하고 우리 민족의 정서적 뿌리를 탐색하는 일을 자신의 역사적 사명으로 삼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 작업이 그에게는 『임격정』 집필이었던 것이다.

물론 오늘의 조건은 벽초의 시대와 크게 다르다. 하지만 70년이 훌쩍 넘는 남북분단의 지속은 식민지상태 못지않은 또 다른 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세대 간, 계층 간 격차는 더 벌어졌고 수많은 외래어의 범람은 우리말의 개념 자체에 재정의의 요구하며, 각종 매체의 발달은 이를 더욱 부채질하는 듯하다. 시인·소설가를 포함하여 지식인이라면 이 점을 의식하고 글을 쓸 책임이 있을 텐데, 소설 『국수』는 충청남도 내포 지방의 토속어를 새롭게 활성화하는 작업을 통해 아름다운 조선말의 본래의 모습을 찾음으로써 그 책임을 다하고 있다. 

## | 염무웅 |



문학평론가. 1941년 강원도 속초에서 출생하여 서울대 독문과 및 동대학원을 졸업했다. 1964년 <경향신문> 신춘문예에 문학평론으로 등단했다. 창작과비평사 대표, 민족예술인총연합 이사장, 민족문학작가회의 이사장을 역임했고, 현재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 이사장과 영남대 명예교수로 있다. 펴낸 집 『민중시대의 문학』(1979), 『모래 위의 시간』(2001), 『문학과 시대현실』(2010), 『살아 있는 과거』(2015), 산문집 『자유와 역설』(2012), 『반걸음을 위한 현존의 요구』(2015), 대담집 『문학과 의 동행』(2018) 등이 있다.

## | 우리말 보물찾기 |

## ‘동심언어’ 속 보물찾기

- 이정록 / 시인

- 엄마는 요리왕이야.
- 다 어깨너머로 배운 거야.
- 아빠 만물박사야.
- 다 어깨너머로 결눈질한 거지.
- 할머니는 정말 못하시는 게 없어요.
- 다 어깨너머로 흉내만 내는 거야.
- 어깨너머에는 별의별 것 다 가르쳐주는 학교가 있나 봐요?

.....

- 배움이란, 어깨너머학교에서 마음을 모셔오는 거란다.

『어깨너머』 전문



‘어깨너머’란 말에는 남이 하는 것을 옆에서 보거나 들어서 배우었다는 겸손함이 있다. 개구리도 꼬꼬리도 어깨너머로 배운 노래로 사랑을 한다. 참된 것은 어깨너머에서 온다. 눈과 마음을 열면 가까이에 가장 멋진 ‘어깨너머학교’가 있다. 어깨너머라는 스승이 눈을 반짝이고 있다. 그러므로 배움은 가장 가까운 것을 모시는 거다.

- 세계지도를 그린다.
- 연필이 빛나갈 때마다
- 몇 겹으로 덧칠해서 그렸다.
- 물너울이 일었다.
- 연필이 지나는 곳마다
- 거품꽃이 피었다.
- 세계지도를 그리는 일은
- 바닷가 물보라를 그리는 일이다.
- 메밀꽃을 피우는 일이다.
- 칫솔질할 때마다
- 내 입이 세계지도 같았다.
- 입술에 흰 파도가 쳤다.
- 내 가슴에 용암이 들끓었다.
- 파도처럼 부서지자.
- 메밀꽃처럼 새하얗게 피어나자.
- 세계지도를 그린다.
- 강강술래, 바닷가를 따라
- 메밀꽃이 핀다.

『메밀꽃』 전문



물너울을 비유적으로 메밀꽃이라고 부른다. 북한에서는 파도에 실려 아래위로 오르내리는 흰 거품을 토끼뿔이라고 부른다. 바다가 토끼뿔 위느라고 애쓰는다는 생각이 들다가도 마음결이 환해진다. 하얀 토끼들이 어깨동무하고 뛰어노는 바닷가가 한눈에 펼쳐진다. 언어는 끊임없이 아름답게 피어나는 꽃봉오리 같다. 모든 사람에게 동심이 있기 때문이다.

외마디부터 시작된 언어가 다양한 정보를 품으며 ‘겹낱말’로 가지를 뻗어 나갈 때, 언어학자들이 말하는 유비와 상징을 넘어서 동심이 끼어들어서 노닌다. 두 언어가 ‘범벅말’이 되는 과정에 재미가 끼어들고, 마음의 기원이 깃든다. 키득거림과 박수 소리와 어깨동무와 열싸안음이 생동한다.

- 거저 얻어먹고 사는
- 동냥치의 더러운 주머니가 아니에요.
- 여물지 못한 열매가 빈 주머니가 된 거예요.
- 높은 자리에 꽃을 피웠다고 좋아한 적 없어요.
- 햇살 차곡차곡 담은 곡식 주머니가 되고 싶었어요.
- 찌알 좋은 열매를 선물하고 싶었어요.
- 늦가를 햇살이나 얻어먹는 비렁뱅이가 아니에요.
- 무언가 빌어가려고 서리와 눈보라를 맞으며
- 부르르 주머니 메고 떨고 있는 게 아니에요.
- 꽃을 늦게 피운 것이 제 잘못인가요.
- 주머니 그득한 한숨에 불을 붙여주세요.
- 차가운 세상에 불쏘시개가 될 거예요.
- 저는 이를 꼭 다문 꼬마장작이에요.

『거저주머니』 전문



가을 참깨를 볼 때마다 애뜻하다. 아래 꼬투리는 다 익어 벌어지는데 우듬지에서 꽃망울이 맺힌다. 곧 서리가 내리고 눈보라가 훑날릴 텐데 말이다. 거저주머니는 안쓰러움에서 생겨난 말이다. 빈 꼬투리와 어린 꽃에 조시를 바치고 싶다. 동심이 없으면 언어는 빛나지 않는다. 낱말과 낱말이 만날 때 둘은 어린아이처럼 껴안는다. 언어는 동심의 놀이터다. 태초에 동심이 있었다. 나는 이것을 ‘동심언어’라고 이름 붙였다.

316편을 묶은 『동심언어사전』은 시의 형식을 빌렸다. 북한말을 포함해서 순우리말로 된 복합어가 주를 이룬다. 복합어는 우리말로 ‘겹낱말’이나 ‘범벅말’이라고 한다. ‘만남언어’나 ‘팔짱언어’라고 불러도 좋겠다.


- 환갑이 넘으면
- 남의나이를 먹는다고 한다.
- 허망하게 죽은 젊은이와
- 한 몸이 되어 황혼 길을 걷는다.
- 다시 맞은 봄으로
- 사랑을 불태우기도 한다.

- 팔순이 지나면
- 남의나이를 모신다고 한다.
- 기저귀 차고 떠난 꺾먹이와
- 동개동개 한몸이 된다.
- 때도 없이 어리광을 부리고
- 떼쓰기와 빼치기와 사랑을 좋아한다.
- 아예 풍오춤도 못 가리는
- 갓난아이로 돌아간다.

- 그래서 영혼은
- 모두다 동갑내기 벗이 된다.

『남의나이』 전문



내 시 쓰기는 알고 보잘것없으나, ‘팔짱언어’에 서려 있는 오랜 사람들의 입김을 믿었다. 언어에는 인간 본성의 따듯함과 사랑이 녹아있다. 약손이 되고 꽃향기가 퍼진다. 재미와 감동이 아니면 꺼져버리는 ‘만남언어’와 숨바꼭질했다. 아이가 문구멍으로 세상을 내다본다. 동심에는 침이 묻은 손가락이 있다. 키가 자라는 문구멍이 있다. 반짝이는 작은 눈동자와 빛나는 너른 세상이 있다. 

## | 이정록 |



1964년 충남 홍성에서 출생하였으며, 1993년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시가 당선됐다. 그 동안 『동심언어사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것들의 목록』, 『아버지학교』, 『어머니학교』, 『정말』, 『익자』란 시집과 『시인의 서랍』이란 산문집을 출간했으며 『대단한 단추들』, 『미술왕』, 『십원짜리 풍탕』이라는 동화책과 『지구의 맛』, 『저 많이 컸죠』, 『꽃구멍만 바쁘다』라는 동시집을 펴냈다. 또한, 청소년시집 『까짓것』과 『달팽이 학교』, 『옹방패』라는 그림책을 냈다. 박재삼문학상, 윤동주문학대상, 김달진문학상, 김수영문학상을 수상했다.



## | 남녘말 북녘말 |

다르고 같은 남북 건설 분야 용어 

- 김두환 / 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

인간사회를 엮는 기본은 사람들 사이 의사소통이고, 의사소통은 대부분 말로 이루어진다. 말이 다르면 의사소통과 사회 동질성 유지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 남과 북의 언어는 얼마나 다를까? 오랜 세월 따로 살아 온 탓에 많은 우려도 있지만 대체로 북측과 함께 작업 해 보거나 공동 사전편찬에 참여해 본 사람들 생각은 남과 북 사이 언어 차이로 인한 의사소통의 문제는 거의 없다는 것인 듯하다. 개성공단에서 북측 노동자들과 함께 일 해 본 남측 관리자나 직원들도 개성공단이 다른 나라 공단보다 나은 가장 큰 이유는 언어가 같다는 것이라고 한다. 지리적으로 가깝고 인건비가 저렴한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의사소통이 원활해서 난이도 있는 기술을 전수하거나 공동 작업을 하는 데 장애가 없다는 것이다. 건설 용어도 다르지 않다. LH 토지주택연구원은 2015년에 중국 연변대 과학기술대학 건축 분야 교수진들과 함께 국토교통부 수탁과제로 「북한건설용어집」을 편찬한 바 있다. 여기에는 국내 건축, 토목 분야 교수 등 여러 전문가들이 감수로 참여하였는데, 전문가들 대다수 의견도 ‘생각보다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었다. 남쪽 지역 간 사투리 차이와 비교해 봐도 그 이상 남과 북의 건설용어가 다르지는 않다는 것이다.

남과 북 사이 언어의 다름이 지역 방언 수준으로 의사소통에 거의 지장이 없다는 것은 향후 남북협력과 통일 과정에서 다른 어떤 것보다 큰 자산일 것이다. 그럼에도 남북 언어를 조사하고 다른 것을 찾아보고 맞추어 보고 공동사전을 편찬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가장 큰 의미 중 하나는 역설적이지만 그리 다르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다른 것을 맞추어 보며 우리 언어와 생활을 더 풍부하게 하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또 하나 남북 언어를 맞추어 보는 것은 남북협력을 위해서도 중요한 일이다. 건설 분야처럼 전문성이 필요하고 사소한 오해나 실수로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영역에서는 언어사용의 전문적 엄밀함이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어, 남과 북이 공동으로 도로나 철도를 건설한다든지, 공장을 건립하고 운영한다든지 했을 때, 계획서나 설계도에 있는 용어의 뜻이 서로 다르거나 현장에서 달리 사용한다면 고도로 전문적인 작업을 하는 데 장애가 될 것이 분명하다. 건설 등 전문 분야별로 남과 북의 전문가들이 해당 분야 용어들을 서로 비교 정리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향후 협력 과정의 시행착오를 줄여주고 그에 따른 위험을 방지하고 비용을 줄여줄 것이다. 용어를 매개로 한 학술적 공동작업이 실제 공동사업을 위한 예비 훈련 같은 효과도 덩으로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같은 부분이 더 많다는 사실이 덮일까 다소 우려스럽기는 하지만, 여기서부터는 다른 점을 좀 더 부각해서 보면, 먼저 북에서는 남에 비해 한자어나 외래어 사용이 많지 않고, 남측에 비하면 순수 우리말이 훨씬 많은 편이다. 「북한건설용어집」에 대표로 소개된 것만 봐도, 남측의 ‘지하도’는 북측에서는 ‘건능굴길’, ‘환기(換氣)는 ‘공기갈이’, ‘방음벽’은 ‘소리막이벽’, ‘내한성(耐寒性)은 ‘추위견딜성’ 등으로 쓴다. 이런 말들을 보다 보면 왜 남측에서는 이렇게 쓰지 않을까 좀 부러운 생각도 든다. 건능굴길, 공기갈이 등은 비록 남측은 쓰지 않는 말들이지만 들으면 어떤 뜻인지 바로 알만한 것들이고 조금 익숙해지면 더 자연스러울만 한 것들

이다. 주택 관련 용어들도 보면 ‘주택’은 ‘살림집’, ‘베란다’는 ‘내밀대나 ‘내민층대로, ‘형광등’은 ‘발디빛등’, ‘주차장’은 ‘차마당’, ‘산책로’는 ‘유보도나 ‘거닐길’로, ‘보도’는 ‘걸음길’, ‘피뢰침’은 ‘벼락촉’, ‘내화성(耐火性)은 ‘불견딜성’으로 쓴다. 이외 ‘압축강도’는 ‘누름세기’, ‘슬라이딩공법’은 ‘미끄럼공법’, ‘준설’은 ‘바닥파기’, ‘경작지는 ‘부침땅’ 식으로 순수우리말로 쓰고 있다.



외래어에서는 남측이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에 비해 북측은 러시아어의 영향을 받은 기술용어가 많은 편이다. 남측의 ‘트랙터’는 북측에서는 ‘뜨락또르’, ‘레일, 철도 선로’는 ‘레루’, ‘홀형’은 ‘책찌야식’으로 쓴다. 러시아어에서 유래한 말들이다. 순수 우리말을 쓴다든가 러시아어의 영향을 더 받았든가 하는 것과 관계없이 서로 다른 사용으로 굳어진 말들도 많다. 예를 들어 ‘화장실’은 ‘위생실’, ‘컨테이너’는 ‘짐함’, ‘건설 허용오차’는 ‘건설공차, 응결속도가 빠른 ‘조강시멘트’는 ‘급결세멘트’, ‘실시설계’는 ‘기술설계’, ‘단열’은 ‘보온’, 벽돌을 쌓아 올리는 ‘조적조’는 ‘적체구조’ 등으로 쓴다. 외래어 표기만 다소 다른 말들도 있는데, 남측의 ‘아파트’는 북측에서는 ‘아빠트’, ‘시멘트’는 ‘세멘트’, ‘콘크리트’는 ‘콩크리트’로 쓴다. 북측 용어에는 북측 사회체제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이해가 되는 것들도 있다. 예를 들어 북측 「토지법」에 나오는 ‘협동경리’는 협동 단체들이 생산수단을 함께 소유하면서 이를 경제적으로 경영하고 관리하는 활동으로 남측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단어이다.



북측 말을 처음 들었을 때는 생소하지만 대부분 조금 생각해 보거나 한두 번 들어보면 바로 이해하고 기역할 만 하다. 북에서 “레루 아래 건능굴길에 뜨락또르”는 남에서는 “철길 선로 아래 지하도에 트랙터”가 된다. 많이 다른 듯도 하지만 알고 보면 그리 다르지 않은 것이 남쪽 말 북쪽 말이다. 여기서는 일부러 레루로 썼지만 ‘레루’를 북측에서 ‘철길’로도 쓴다. 북측 말 남측 말은 다른 분야도 그렇지만 건설 용어에서도 다른 듯 다르지 않다. 그래서 당초 “남북 건설 분야 용어의 차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쓰다가 제목을 “다르고 같은 남북 건설 분야 용어”로 고쳤다. 서로 같은 것도 소중하고 다른 것도 소중하다. 같아서 함께 하기 좋고 달라서 더 풍부해지고 상상력을 자극해 주니 좋다. 말이 서로 다른 것을 찾아보고 맞추다 보면 뜻도 서로 맞추게 되고 일도 같이할 마음도 더 생기기 마련이다. 이런 생각으로 남과 북 건설 용어의 다름과 같음을 나눠보았다. 

## | 김두환 |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서 도시계획학 석사와 박사를 취득하였으며, 현재 LH 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으로 국토지역연구실장을 맡고 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같은 연구원에서 북한연구센터장을 역임하였으며, 2015년에 토지주택연구원 연구진, 중국 연변대학교 과학기술대학 건축 분야 교수들과 함께 국토교통부 수탁으로 「북한건설용어집」을 편찬한 바 있다.

남녘말 북녘말 여름엔 청량음료를 보기 &gt;

| 남녘말 북녘말 |

## 여름엔 청량음료를

- 고대영 / 겨레말큰사전 선임연구원

머김없이 또, 여름이다. 햇살은 찬란하고 젊음은 그 강렬한 빛 아래 반짝인다. 자외선도 무섭지 않고 구릿빛으로 칠해 놓은 육체는 건강함으로 무장하고 있는 듯하다. 여름 별미란 너무도 눈부신 탓에 그늘 한 쪽도 남기지 않았을 것 같다. 하지만 어느 건물미든 조각 그늘을 만들고 그곳에 별을 피해 한 떼의 사람들이 뽕기 뽕기 모여 있게 마련이다. 젊음의 정점을 찍고 이젠 하향 그래프를 타고 미끄러지고 있는 중년들이 그늘 아래서 나름의 방식으로 여름을 즐긴다. 이때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맥주’다.

광고의 그것처럼 목을대들 힘차게 움직이며 맥주를 원샷하는 것도 좋겠지만 이건 그늘의 음주법이 아니다. 차가운 잔에 가볍게 입을 대고 한 모금씩 천천히 탄산과 알코올의 맛을 음미하는 것이다. 느긋한 여유 속에서 시냇바늘이 시나브로 거꾸로 돌기 시작하고 모금마다 과거의 여름을 추억하게 된다.

어느 해 여름, 조별로 맡은 사전 원고를 꺼내고 남북의 편찬원들이 씨름을 했다. 가만히 앉아서 하는 일이지만 사전 풀이에 대한 관점 차이와 남북의 언어 차이로 비지뽀미 절로 나는 순간이었다. 게다가 단 한 마디의 말실수로 회의 자체가 중지되는 일도 있었다니 협의를 하는 중 한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아선 안 되었다. 그건 북측 편찬원들도 마찬가지였으리라. 그렇게 긴장의 순간들을 끝내고 만찬 때의 일이다.

협의 마지막 날, 남북의 편찬원들이 모여 만찬을 즐겼다. 가볍게 잔이 오가고 긴장이 알코올에 소독되기 시작했다. 즐거운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던 중 옆자리에 있던 나이 지긋한, 북측 여자 편찬원에게 ‘평양주’를 권했다. 북측의 ‘평양주’는 소주(증류주)의 일종으로 알코올 도수가 30~40도에 이른다. 그러자 그 편찬원께서 “여자가 어떻게 술을 마십니까?”라고 되물으시며 사양을 하셨다. 그러곤 앞에 놓인 맥주잔을 들고 곱게 한 모금을 마시는 것이 아닌가? 분명히 맥주도 술인데 ... 내가 싫으셨던 것일까? 똥심에 “맥주도 술인데요.”라고 한 마디 거들었더니 그분께서 “술이라니요? 청량음료지요.”라고 대꾸하셨다. 청량음료?



남북의 사전에서 ‘술’과 ‘청량음료’를 찾아보자.

	표준국어대사전	조선말대사전
청량음료 (淸涼飲料)	이산화 탄소가 들어 있어 맛이 산뜻하고 시원한 음료를 통틀어 이르는 말. 사이다, 콜라 따위가 있다.	맛이 시원하고 상쾌한 기분이 나게 하는 《사이다, 과일단물, 약수, 탄산수, 신짚단물, 맥주 같은것》을 통털어 이르는 말.
술	알코올 성분이 들어 있어 마시면 취하는 음료. 적당히 마시면 물질대사를 높이는 효과가 있다. 맥주, 청주, 막걸리 따위의 발효주와 소주, 고량주, 위스키 따위의 증류주가 있으며, 과실이나 약제를 알코올과 혼합하여 만드는 혼성주도 있다.	<알코올성분이 들어있는 마시는 액체>를 통털어 이르는 말.



《조선말대사전》에 따르면, 술은 ‘알코올’이 들어 있는 음료이고 청량음료는 청량감을 주는 음료다. 그런데 청량음료의 예시로 당연히 ‘맥주’가 들어 있는 것이 아닌가? 논리상으려야 알코올의 유무가 청량음료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니 맥주를 청량음료라고 분류하는 데 굳이 이견을 달 이유는 없다. 그렇지만 맥주는 술의 뜻풀이대로 ‘알코올’이 들어 있는 음료가 아닌가. 그러니 당연히 술이어야 할 터인데 북에서는 술이 아니란다. 북에서는 남에서 소위 ‘독주’라고 할 만한 높은 도수의 알코올 음료만을 술이라고 하고 맥주처럼 낮은 도수인 경우에는 술이라고 하지 않는다고 한다. 맥주가 청량음료인 것처럼! 북에서는 음료와 맥주를 파는 가게도 ‘청량음료점’이라고 한다.

햇빛이 기울어지고 상념도 잦아들고 맥주의 냉기도 가셨다. 미지근한 맥주를 더 마시기 싫어 자리를 털고 일어나면서 문득 ‘대동강 맥주’가 간절해진다. 물론 개인적인 취향이겠지만 대동강 맥주는 라거로서 우리 입맛에 참 잘 맞는 것 같다. 언젠가 목류관에서 선주후면할 날을 고대하며 그늘을 벗어난다.

남녘말 북녘말 **다르고 같은 남북 건설 분야 용어 보기** >

| 뜻풀이 깊고 더하기 |

## 콩고물

- 김영덕 / 겨레말큰사전 선임연구원

한여름의 무더위가 절정에 이르며 차갑고 시원한 것을 찾게 된다. 선풍기와 에어컨을 틀고 냉면, 아이스크림, 팔방수 등 시원한 여름 음식을 찾는다.

최근 찻집에 가서 빙수 메뉴판을 보고 놀란 적이 있다. 정말 다양한 종류의 빙수가 있었다. 그중 가장 눈에 띈 것은 콩고물과 인절미가 가득 올라간 빙수였다. 우리 전통의 재료를 이용해 시원한 여름 메뉴를 개발한 경우인데, 콩고물 특유의 고소한 맛과 향이 인절미와 잘 어울렸다. 고소한 콩고물 냄새가 코를 자극했다.



- 고소한 **콩고물** 맛이 혀끝에서 금세 녹아났고 몇 번 씹지 않아 찰떡 덩어리가 목구멍으로 저절로 넘어갔다. 《김원일: 불의 제전》(남)
- 오유씨는 아까 낮에 신시장에 가서 사온 인절미 **콩고물** 고소한 냄새가 아직 그대로 묻어 있는 떡을 생각했던 것이다. 《최명희: 혼불》(남)
- **콩고물**을 담백 묻힌 찰떡이 보기만 해도 먹음직하였다. 《리갑기: 사진》(북)
- 감자를 무르게 찌서 당분, 소금, 계피가루를 넣어 절구에 찝는다. 밤톨 크기로 동글동글하게 빚어서 **콩고물이나** 팔고물을 묻힌다. 《박승일: 전통적인 지방음식 몇 가지》(북)

위의 예들은 《겨레말큰사전》 용례검색기에서 콩고물이 사용된 문장을 뽑은 것이다. 문장을 보면 남, 북 모두 같은 의미로 쓰고 있는 것 같다. 그렇다면 실제 국어사전에서는 어떻게 풀이되고 있을까?

《표준국어대사전》

**콩고물** [명사]  
콩가루로 만든 고물.

《조선말대사전》

**콩고물** [명사]  
= 콩보숭이.  
**콩보숭이** [명사]  
닭은 콩을 붓아서<sup>1)</sup> 낸 가루, 찰떡 같은 데 묻혀 먹는다. [=]콩고물.

위의 풀이는 《표준국어대사전》(웹사전)과 《조선말대사전》(1992)의 뜻이다. 《조선말대사전》은 콩고물을 콩보숭이와 같은말로 보고 기본 뜻풀이를 콩보숭이에서 하고 있다. 찰떡 같은 데 묻혀 먹는 콩가루를 의미하는데 이는 《표준국어대사전》 풀이와 별반 다르지 않다.

그런데 간혹 신문 기사나 소설을 읽다 보면 다른 의미의 콩고물을 발견할 수 있다.

- “당내에서 아무 말도 안 하는 사람들을 중립이라고 하는데, 비겁한 사람들이다. 나서지 않고 있다가 당이 정상화되면 **콩고물만** 먹겠다는 속셈이다”라고 비판했다. 《경향신문 2018.06.30.》
- 아가씨 그렇게 살지 마. 마음을 그렇게 나쁘게 먹으면 못 쓰는 거야. 사춘이 땅 사면 왜 배가 아파. 같이 기뻐해야지. 그 속담 바뀌어야 돼. 사춘이 땅 사면 **콩고물이** 떨어진다. 《천운영: 사춘이 땅을 사면》
- 내가 공사 책임자라 그러니 사정 좀 봐주쇼. 잘돼야 그쪽도 **콩고물이** 떨어질 거 아니오? 《강지영: 프랑켄슈타인 가족》
- 니들도 마찬가지로야. 공부시키고, 결혼시켜 가정을 이루었으면, 그걸로 끝이지. 행여 부모한테 떨어질 **콩고물** 더 있나 기웃거리는 것도 꼴볼건이야. 《이명인: 낙타》

위의 예들은 사전에 나와 있는 콩고물과는 차이가 있다. 문맥을 보면 크게 노력하지 않고 가질 수 있는 이득 정도를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콩고물은 떡을 좀 더 맛있게 만든다. 콩고물 묻은 떡은 아무리 조심조심 먹어도 주변에 콩가루를 흘린다. 그러나 콩가루가 떨어져도 떡은 맛있다. 떨어진 콩가루가 떡의 맛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처럼, 떨어진 콩고물이 떡에서 차지하는 약 그 정도만큼의 이득이 아닐까 한다.

이 새로운 쓰임은 꽤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다. 그래서인지 《고려대 한국어사전》(2009)에는 “어떤 일이나 남에게서 공짜로 생기는 조그마한 이득을 속되게 이르는 말”로 등재되어 있다. 《겨레말큰사전》에서도 이러한 쓰임을 반영하여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뜻풀이를 하면 어떨까 한다.<sup>2)</sup>

**콩고물** [명]

- ① 콩가루로 만든 고물.
- ② 부수적으로 생기는 조그마한 이득.

1) '붓다'는 《조선말대사전》에 다음과 같이 풀이되어 있다. : (방아, 절구, 분쇄기 같은 것으로) 가루를 만든다.  
2) 아래 풀이는 글쓴이의 견해이다. 《겨레말큰사전》의 의견이 아님을 밝혀 둔다.

## | 겨레말 소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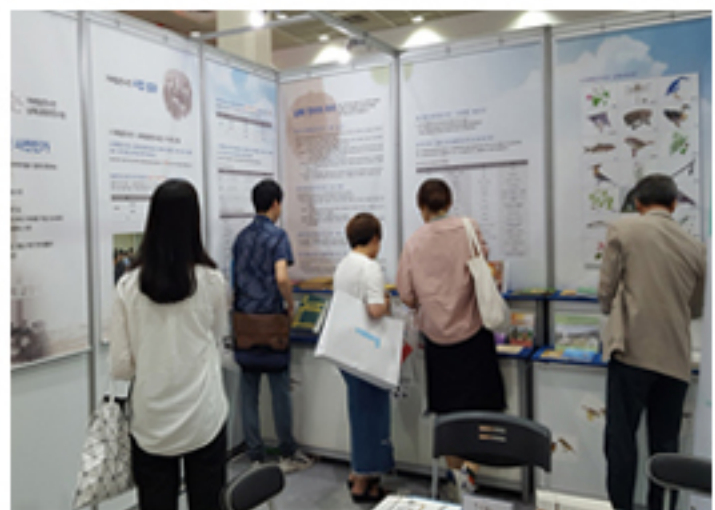
## 겨레말큰사전 '2018 서울국제도서전' 참여

'2018 서울국제도서전' 행사가 지난 6월 20일부터 24일까지 코엑스에서 개최되었다. 대한출판문화협회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한 '2018 서울국제도서전'은 국내관 234개사와 국제관 주빈국 체코를 비롯한 32개국 91개사가 참여하였다.

편찬사업회도 《겨레말큰사전》 편찬 사업을 소개하고, 언어 통일 준비에 대한 생각을 시민들과 나누기 위해 행사에 참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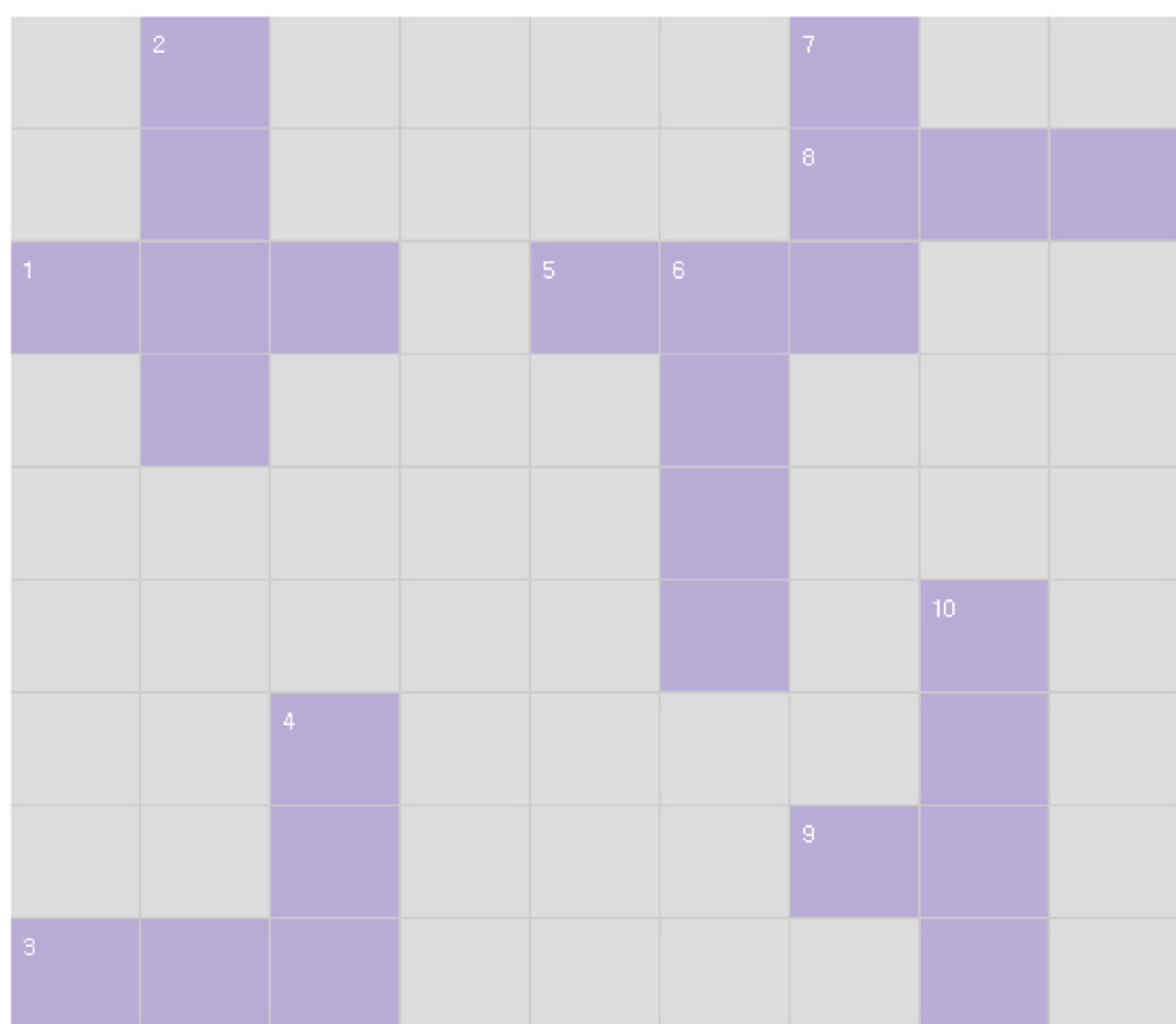
《조선말대사전》을 비롯한 북한의 사전과 어휘 관련 도서를 전시하였으며, 2017년에 출간된 『한눈에 들어오는 남북생활용어』와 스마트폰 앱 <남녘말 북녘말>을 일반 시민들에게 알리는 시간도 가졌다.

편찬사업회 부스를 방문한 시민들은 직접 보고 읽을 수 있는 북한 사전과 도서에 큰 관심을 보였으며, "남북 교류가 활성화되어 《겨레말큰사전》이 하루 빨리 편찬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하기도 하였다. 편찬사업회는 앞으로도 많은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 겨레말큰사전 부스에 전시된 자료를 살펴보는 시민들

| 겨레말 낱말 풀이 |



- ① 북에서 '입장표'를 다듬은 말로, "철도에서, 손님을 마중하거나 배래기 위하여 역구내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팔아주는 표."를 뜻한다. 나들○.  
예) 부부는 표파는 곳에서 ○○○ 두장을 사가지고 지하도로 해서 홈으로 나갔다. 《인생의 악보》
- ② 다이빙의 동의어로 쓰이는 북녘말. "일정한 높이에 설치된 탄성판을 리용하여 갖가지 재주를 부리면서 물속으로 뛰어내리기를 겨루는 경기종목."을 뜻한다. 뛰어○○.  
예) 5백 석의 계단식 관람석을 가진 수영장에는 각종 해염과 물에 ○○○○ 경기를 할 수 있는 모든 설비들이 훌륭하게 갖추어 있었다. 《적후의 별들》
- ③ "조선민족 고유한 민족적인 형식의 옷."의 뜻으로 쓰이는 북녘말. '한복'을 뜻한다. 조선○.  
예) 눈썰미와 침선 솜씨가 있어 당신이 잘 다듬은 ○○○을 입고 집을 나설 때면 이웃 아주머니들이, 참으로 잘 지은 옷이라며 한결같이 칭찬 말을 했다. 《마당 깊은 집》
- ④ 북에서 '드레스(드레스)'를 다듬은 말로, "학령 전 여자 아이들이 흔히 입는 달린 옷의 한 가지."를 뜻한다. 달린○.  
예) 그러자 이번엔 빨간 ○○○을 입은 유치원꼬마들이 달려왔습니다. 《동강마을에 갔던 해남이》
- ⑤ (헤어)드라이기의 뜻으로 쓰이는 북녘말. "머리카락을 말리거나 다듬는 기구."를 뜻한다. 동의어 건조기.  
예) 머리 단장하는 시간마저 아까와 파마했던 머리를 자르고 단발하였고 한손으로 ○○○를 쥐고 다른 손으로 머리칼을 다듬으면서도 연습을 중단하지 않았다. 《저고리》
- ⑥ 꺾달의 동의어로 쓰이는 북녘말. "(돌리거나 멈춰 세우기 위하여) 발로 디디는 기계의 부분품."를 뜻한다. 동의어 답판, 발딜개, 발○○개.  
예) 여전히 자전거 ○○○○를 정신없이 밟으며 달려온다. 《어머니에 대하여 말하다》
- ⑦ 컴퓨터 용어에서 '서버'의 뜻으로 쓰이는 북녘말. "파일의 보관이나 입출력, 호출과 같은 봉사, 인쇄출력, 통신조종과 같은 봉사를 하는 컴퓨터."를 뜻한다. 봉사○.  
예) 하드웨어와 ○○○.
- ⑧ '교차로'의 동의어로 쓰이는 북녘말. "길이 서로 사귄 곳."을 뜻한다. 사귄○.  
예) 교통지휘신호를 하는 ○○○에서 곧바로 또는 오른쪽으로 가려 할 때에는 교통지휘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가며 왼쪽으로 돌아가려 할 때에는 지하건널길로 안전할 때 끌고 가야만 한다. 《자전거교통안전규정》
- ⑨ '드리블'의 동의어로 쓰이는 북녘말. "축구, 농구, 송구 등과 같은 구기경기에서 공을 몰아가는 일."을 뜻한다.  
예) 농구는 일정한 경기장 안에서 순간속도를 내며 달리고 조약하며 ○○, 연락, 넣기 등 다양한 기술수법을 적용하면서 복잡한 육체운동을 진행한다. 《건강에 좋은 농구》
- ⑩ 나부끼다의 북측 표기. "얇은 천이나 종이 같은 물체가 바람을 받아 가볍게 움직이다, 또는 그렇게 하다."를 뜻한다.  
예) 미옥의 손에 흰 머리 수건이 기발처럼 ○○○○가 머물거렸다. 《철새는 날아가도》

정답확인 >

